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이 교도소 수용자의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 분노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이철호 김정애 이민규* 윤창영
법무부 경상대학교 한국진로코칭연구소

주관안녕은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으로, 정서 요인과 인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분노와 분노반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교도소 수용자의 주관안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주관안녕에 정서 측면의 분노, 보다 인지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분노반추 그리고 사회의존성과 자율성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이 주관안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분노와 분노반추가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2009년 J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207명을 대상으로 분노, 분노반추, 사회의존성 과 자율성, 그리고 주관안녕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분노는 주관안녕인지와 정서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특성인 분노반추도 주관안녕인지와 정서에 모두 부적영향을 미쳤다. 둘째, 우울 등과 관련된 성격특성인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은 주관안녕정서와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고 주관안녕인지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지만 사회의존성과 주관안녕정서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의존성이 주관안녕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특성분노와 분노반추가 완전매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 분노반추, SAS, sociotropy, 사회의존성, 주관안녕, 교도소, 수용자, 범죄자

미국과 유럽 등은 최근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범죄의 발생과 재범 발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Link & Steuve, 1995; 조은경, 2005).

† 교신저자: 이민규,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55) 751-5781, E-mail: rmk92@chol.com

수용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수형생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경우도 있지만 수형생활 중 겪는 정신적인 문제가 출소 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재적응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형생활 중의 정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조은경, 2005; 이철호, 이민규, 2006).

국제범죄연구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of Prison Studies, 2009)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9백 8십만 명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1위 미국(2,310,984), 2위 중국(1,565,771), 3위 러시아(886,989), 4위 브라질(440,013)이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심리학자와 범죄학자는 수용자 주관안녕의 원인과 결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Hareveld, Pligt, Claassen, & Van Dijk, 2007).

수용자가 구금에 대처하는 정신 능력은 교정시설 프로그램의 성공 지표가 되며, 장기간 수용생활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서 야기된 폭력과 질병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Wright & Goodstein, 1989; Wooldredge, 1999). 또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곳으로부터 떨어져 격리된 수용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함을 발견하였고, 이에 더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 제한되거나 개인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극이 적을 때 다른 사람과 더욱 불협하고 분노하게 된다(Toch, 1977; Wooldredge, 1999; Wright, 1993). 분노는 일반 수용자집단에서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성적 분노통제 문제를 가진 수용자는 분노유발상황을 더욱 나쁘게 지각하고 해석한다. 즉 분노문제를 가진 수용자는 분노유발상황을 보다 크게 왜곡하는 경향을 가진다(Kroner & Reddon, 1995).

이처럼,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문제에 취약한 수용자는 교도소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형기간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행동문제(자살, 자해, 싸움 등)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이는 교정분류 결정이나 가석방 여부의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자신의 문제행동으로 교정분류 결정이나 가석방 여부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함을 안 수형자는 건전한 수형생활을 포기(자해, 자살, 싸움, 정보공개, 청원, 행정소송 등의 행위)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교정행정은 이들을 엄중관리대상자 그리고 관심수용자²⁾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개별적인 처우가 필요하고 개별적인 처우를 하는 만큼 교정행정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이영희, 2009; 이철호, 이민규, 박혜량 등, 2009).

자신의 행위로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용생활을 하므로 일반사회와 심리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교정시설 내의 구성원인 동료 수용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교정공무원과 역할관계에서 수형자들이 노여움, 공격성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스스로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교화되는 경우에는 교정교육과 교정행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홍성열, 2009). 수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직면한 수형자들은 우울, 불안, 분노감정을 가지기 쉽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개인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사건 혹은 상황과 개인의 성격(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증, 불안 등을 유발하고 개인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장기간의 수용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 등 교정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 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 2. 마약류수용자 3. 관심대상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지정기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2.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3.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중략- 8.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중략- 1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1) 각 나라마다 기준 연도(예, 중국은 2005년 기준)와 수용 기준상의 차이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회의존성이 높은 사람이 우울해지면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경험하고 반응성 우울증과 관련되는 증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고독과 불안증상이 심하고 잘 울지만, 도움을 잘 청한다. 기분의 변화가 심하지만 치료에 대한 절망감을 적게 느끼고 치료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반면 자율성이 높은 사람이 우울해지면 패배감, 무망감, 치료에 대한 비관적 생각, 자기-비난, 실패감, 흥미나 즐거움에 대한 깊은 상실감, 비반응적이고 지속적인 우울감을 포함한다(이민규, 2000).

이에 본 연구는 과밀수용과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우울 등의 정서를 잘 경험하는 수용자가 어떤 성격특성(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정신건강의 한 척도인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수용자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인 분노가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노와 관련성이 높은 분노반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노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Mahabharata, 바라타 왕조의 대서사시)의 제6권에 속하는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 신의 노래)에서는 분노의 뿌리는 욕망(desire)이고 욕망의 좌절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사람을 눈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우사 람, 2000).

수용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서가 분노이다. 수용자 분노는 교도소적응, 규율문제, 공격성 그리고 폭력과 연관된다. 수용자의 분노는 교정시설 직원에 대한 신체 및 언어적 공격과도 연관된다(Kroner & Reddon, 1995; 유철민, 2009; 민정희, 강혜자, 2009).

교도소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 같은 다른 부정적 정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에 분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시설수용의 초기단계에 대략 일주일에 두 번의 분노상황을 경험한다고 한다(Zamble, 1992).

사고-행동 경향성이 사고 또는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분노와 관련된 사고-행동 경향성(Thought- Action Tendency)은 공격(attack)을 유발하기도 한다(Fredrickson & Branigan, 2001).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의 하나로서 공격성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분노이다. 심장박동률은 행복, 놀라움 그리고 혐오보다 분노, 공포, 슬픔의 부정적 정서에서 더욱 빨랐고 분노, 공포 그리고 슬픔정서 중에서 분노가 다른 정서보다 피부온도가 높게 나타났다(Smith, Nolen-Hoeksema, Fredrickson, & Loftus, 2003).

김은심, 이민규, 최지명(2006)은 암환자와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환자 집단이 일반환자에 비해서 분노억압과 적대심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전경구 등(1999)은 분노의 수준과 부부관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따라 심근경색 수준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차보경과 손정남(2006)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는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상태분노, 분노억제 그리고 분노표출이 유의하게 높음을 밝혔다.

한덕웅(2001, 2003)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지정된 허준의 동의보감(1613)에서 정서와 신체질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노로 기(機), 혈(血), 맥(脈) 그리고 정신(神)이 손상되면 신체의 오장 중 간장에 나쁜 영향을 미쳐 이 기관에 신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성냄 정서가 지나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잘 못 쉬고 소화가 잘 안되고 폐, 위, 심장 및 간 등 신체 장기 전반에 걸쳐 부담을 줄을 발견했다.

이철호와 이민규(2006)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태·특성분노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모든 하위증상이 정적인 상관을 보여줌을 밝혀 분노가 높은 수용자는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분노는 공포불안, 편집증, 신체화, 대인민감성, 불안, 정신증, 강박증, 우울, 적대감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40\sim.55$, $p<.01$). 상태분노는 강박증, 신체화, 편집증, 대인민감성, 공포불안, 정신증, 우울, 불안, 적대감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r=.53\sim.68$, $p<.01$). 특성분노보다는 상태분노의 상관이 높았다.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모두는 적대감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주어 수용자의 분노가 높을수록 적대감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인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심리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윤미, 이지연, 양난미(2008)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대감과 분노감은 실존적 영적 안녕과 부

적상관을 나타냈고 영적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았으며 이러한 신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밝혔다.

분노는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교통체증분노, 살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격성 형태를 띤 범죄행동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쁜 건강행동을 일으켜 병에 대한 취약성, 면역 체계 손상, 고동, 심혈관 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와 같은 건강취약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과도 연관된다(Vecchio & O'Leary, 2004; Dobash & Dobash, 1984; Boyle & Vinian, 1996; Suinn, 2001; 김교현, 전경규, 1997; 이철호, 이민규, 2007).

이처럼 분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개관한 결과, 분노는 범죄행동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여겨지는 분노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은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를 살펴보고 원하지 않는 수용생활과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분노반추

Sukhodolsky, Gloub와 Cromwell(2001)은 일반적으로 분노를 정서로 보는 반면 분노 반추는 이 정서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분노반추는 보다 광범한 분노현상의 연속선에 있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과거사건과 정서에 대해 반추 혹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에 차이를 보인다는 전제하에 분노반추척도를 개발하였다. 분노반추는 ①분노 기분(moods)에 주의(attention)하고, ②과거 분노경험에 대해 회상(recall)하고 그리고 ③분노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Maxwell, 2004).

Maxwell(2004)은 분노반추가 공격성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밝혔고 반추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각중단(thought stopping)과 생각 전환(thought switching)을 제시하였다. 반추는 부적 정서와 사건에 한하여 발생하지는 않고 긍정적 정서와 사건에 대해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 우울, 분노 등의 부적인 정서와 부정적 사건에 대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기도 하

다. 특히 이전 연구는 반추가 슬픔(sadness), 우울 혹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Nolen-Hoeksema, 1991; Martin & Tesser, 1989; Watkin, 2004).

Rusting과 Nolen-Hoeksema(1998)는 고활동성 기분(high-activation moods)인 분노와 반추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그들은 저활동성 기분(low-activation moods)인 우울과 반추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주관적이며 부정적인 분노는 위협, 부정적 평가, 생리활성반응 그리고 고양된 행동경향과 연관된 정서로 정의된다. 분노는 자기변명이나 타인비난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다(Averill, 1982; Baumeister, Stillwell, & Wotman, 1990; Frijda, 1986; Rusting & Nolen-Hoeksema, 1998). 따라서 분노반추는 과거 사건들을 포함하는 분노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경향이며 부정적 느낌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 시도이다(Langlois, Freeston, & Ladouceur, 2000a, 2000b;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Watkins, 2004; Wenzlaff & Wegner, 2000).

Bushman(2002)은 분노반추는 부적정서에 “카타르시스 효과”를 주기보다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효과”를 가져 부적 정서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Barber, Maltby 그리고 Macaskill(2005)은 분노기억은 자신을 용서하는데 중요하고 복수하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중요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Anestis, Anestis, Selby와 Joiner (2009)는 인지정서 통제질문지(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2001)를 사용한 연구에서 분노반추가 신체적·언어적 공격, 적대감을 예측하지만, 분노반추가 분노를 예측하지는 않았다.

Maxwell(2004)은 분노반추 특히 복수사고(thoughts of revenge)는 운동선수의 공격성과 연관됨을 밝혔고, 분노반추는 자살생각(Miros, 2000), 비효과적 대처기법(Stoeber, 2003) 그리고 증가된 혈압(Hogen & Linden, 2004)과 연관됨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Martin 과 Dahlen(2005)는 인지정서조절에서 반추요인은 특성분노, 분노표출(anger expression-out), 분노억압(anger expression-in)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우울, 불안, 분노 등 부정적 정서 모두의 가장 중요한 예

측요인이 반추(Rumination)와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추에 대한 연구는 저-활동성 기분에 집중되어 있고 고-활동성 기분인 분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분노와 분노반추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특성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분노와 분노반추는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고 분노반추가 교도소 수용자의 심리적 주관안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한다.

사회의존성 및 자율성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는 수용자 상호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호간 관계를 맺는 경우 피상적으로 맺는 특징을 가진다. 가족 또는 친지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지만 수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내로부터 이혼청구를 받는 경우, 가족과 연락두절 등으로 사회관계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영희(2009)는 수용생활에서의 불안감 경험에 관한 조사에서 영치금이 떨어졌을 때와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 가장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타인과 관계를 맺는 특성이 어떤가에 따라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과 주관안녕의 질을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타인관계의 욕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리 특성으로 Beck, Epstein, Harrison와 Emery(1983)는 인지 관점에서 사회의존성(sociotropy, social dependency)과 자율성(autonomy)이라는 두 가지 성격차원을 제시하였다. 사회의존성은 타인 의존 성격을 의미하고 타인의 사랑, 승인, 존중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특징으로 한다. 자율성(autonomy)은 개인목표성취와 타인통제로부터 해방을 위한 과도한 개인적 욕구를 의미한다.

Beck(1983)의 우울이론은 인지도식과 두가지 성격양식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관계의 비-융통적(inflexible)이고 비-현실적(unrealistic)인 기대 때문에 우울에 더욱 취약하다. 사회의존적인 사람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상하기위해 안전한 대인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성취영역에서 비-융통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우울에 취약하다.

약하다.

사회의존성은 대인관계(성취관련이 아닌)스트레스원과 상호작용하고 자율성은 성취관련 스트레스원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유발시킨다는 사건일치성 가설(the event congruency hypothesis)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Dasch, Cohen, Sahl, & Gunthert, 2008; 이민규, 2000).

Morse와 Robin(2005)의 연구는 사건일치성을 만족시켰지만 Raghavan, Le와 Berenbaum(2002) 그리고 Fresco, Sampson, Craighead와 Koons(2001)는 사건일치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Raghavan 등(2002)의 연구는 사회의존성은 사건일치성을 만족시켰지만 자율성은 우울이 아닌 적대감(hostility)을 예측할 때에만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Fresco 등(2001)의 연구도 우울이 아니라 불안을 예측할 때 사건일치성을 만족시켰다. 이민규(2000)의 연구는 자율성은 성취사건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지만, 대인관계사건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의존성은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성격요인을 기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the Sociotropy-Autonomy Scale(SAS; 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SI; Robins, Ladd, Welkowitz, Blaney, Diaz, & Kuther, 1994),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DEQ; Blatt, D'Afflitti, & Quinlan, 1976), 그리고 역기능적 태도척도(DA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Weissman & Beck, 1978; Cane, Olinger, & Gotlib, 1986)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척도는 비슷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구성개념은 아니다(Bieling, Beck, & Brown, 2000).

SA(Sociotropy and Autonomy)개념이 제안된 이래 많은 연구 분야에서 사용하여 처치반응효과를 예측함을 발견하였고 사회의존적인 사람은 집단치료에서 더 나은 성공을 보이고 자율적인 사람은 개인치료에 더 나은 성공을 보였다(Zettle, Haflich, & Reynolds, 1992; Zettle, & Herring, 1995). Hilton과 Moniz-Cook(2004)는 SA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치매노인이 기분과 행동적 문

제를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Westmaas, Ferrence와 Wild(2006)은 자율성이 남자들의 금연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임상현장에서 분노와 우울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를 타인 탓으로 돌리면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Ellis & Tafra, 1997; Lazarus, 1991). 수용자들은 좌절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욕구가 좌절되면 분노를 경험하기 쉬운 것이다. 주로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와 관련하여 연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부정정서인 분노가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관안녕3)

주관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zalai(1980)는 주관안녕을 개인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느끼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은 정서 측면과 인지 측면을 통합하여 내리고 있다. 정서 측면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의 유쾌한 정도(hedonic level)를 평가하고, 인지(cognitive) 측면에서는 스스로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주관안녕을 정서(affective) 요인과 인지(cognitive) 요인으로 나누고 있는데(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정서 요인을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고 인지 요인을 삶의 만족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물론, 정서 요인과 인지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많은 주관안녕의 측정도구들은 두 측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 요인과 정서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때로 독립적으로 변하며 여러 다른 변인들과 서로 다른 관계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Andrews & Withey, 1976; Cambell, Converse, & Rodgers, 1976; Stock, Okun, & Benin, 1986; Pavot & Diener, 1993). 즉, 주관안녕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이 두 요인을 독립적으로 측정했을 때 주관안녕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관안녕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정 정서경험 그리고 많은 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한덕웅과 박준호(2003)의 연구에서, 반복생각과 분노의 경험이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였으며,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으면서 반복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주관안녕이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한덕웅과 표승연(2002)은 분노는 연령에 관계없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하는 정서이고 분노가 높을수록 전체주관안녕과 주관안녕인지 수준이 낮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주관안녕이 분노라는 부정적 정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분노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정서가 주관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집단생활에서 타인관계 욕구의 좌절은 분노를 일으키고 주관안녕을 저해 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비-융통적이고 자신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좌절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이 분노가 주관안녕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개인목표성취와 타인통제로부터 해방을 위한 과도한 개인적 욕구인 자율성은, 비-융통적이고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교도소라는 환경에서 좌절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주관안녕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의존성과 자율성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칠 때 분노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외국학문 수용은 새로운 용어를 번역하고 함의하는 작업이 필연이다. 번역된 용어는 한 분야의 전문용어로 인정되고 사용된다. 현대국어에서 일본어 영향을 많이 받아 비판 없이 사용되는 예가 접미사 '-적'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도 일본어 간섭을 배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Subjective well-being을 주관안녕이라 표현 하고자 한다. [참고] 김광혜(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유동석, 차윤정(2004) 조선어 학습서에 나타난 국어사적 특징과 일본어 간섭현상.

방 법

참여자

경상남도 소재 J교도소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업장과 수용거실별로 집단검사를 실시하여 245명의 자료를 모았다. 자료가 불충분한 38명을 제외하고 총 20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평균 연령은 41.7세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수형생활변인의 특징을 표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본 연구에서 분노는 상태분노, 특성분노를 측정하였으며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가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각 10문항, 분노표현 24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anger expression) 문항을 제외하고 상태-특성분노만을 측정하였다.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문항은 '거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다. 본 연구에서 상태분노의 내적합치도(Cronbach' a)는 .91, 특성분노는 .90으로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안녕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

주관안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과 정서를 의미한다. 모두 17문항으로 주관안녕인지(cognition)와 주관안녕정서(emotion)로 구성된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제작한 주관안녕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안녕인지는 Campbell(1976, 1981)이 사용한 7문항의 7점 척도이고 주관안녕정서는 Diener (1984) 그리고 Diener 와 Suh (2000)가 사용한 10개 정서들에 반응하여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10문항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주관안녕인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 a)는 .95 이었고 주관안녕정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a)는 .96이었다.

표1. 인구통계학적, 수형생활 변인의 특성

		구분	사례(비율) N(%)
연령		20대	35(16.9)
		30대	60(29.0)
		40대	51(24.6)
		50대	43(20.8)
		60대이상	17(8.2)
		무응답	1(0.5)
결혼 상태		미혼	93(44.9)
		기혼	55(26.6)
		이혼	46(22.2)
	무응답	13(6.3)	
교육 년수		무학	1(0.5)
		초졸	17(8.2)
		중졸	56(27.1)
		고졸	93(44.9)
		대졸이상	28(13.5)
	무응답	12(5.8)	
범죄 유형		살인	67(32.4)
		성폭력	39(18.8)
		강도	30(14.5)
		재산범죄	26(12.6)
		절도,마약	29(14.0)
		폭력,상해	15(7.2)
	무응답	1(0.5)	
형기		1년미만	5(2.4)
		3년미만	55(26.6)
		5년미만	30(14.5)
		7년미만	23(11.1)
		10년미만	18(8.7)
		10년이상	59(28.5)
	무응답	1(0.5)	
잔여 형기		1년미만	70(33.8)
		3년미만	40(19.3)
		5년미만	35(16.9)
		7년미만	12(5.8)
		10년미만	19(9.2)
	10년이상	31(15.0)	
	무응답	0(0)	
정역 상태		정역	156(75.4)
		비정역	51(24.6)
		무응답	0(0)
	계	207(100.0)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ARS)

이는 Sukhodolsky, Golub와Cromwell(2001)이 개발한 Anger rumination scale(ARS)을 이철호, 이민규, 송민정, 심태경(2008)이 표준화한 것으로 19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4이었다.

사회의존성과 자율성(Sociotropy - Autonomy Scale, SAS)

Bieling, Beck와Brown(2000)등이 개발한 Sociotropy-Autonomy Scale(SAS)를 이철호, 우리님, 이민규(2008)가 표준화한 것으로 사회의존성 18문항, 자율성 17문항의 5점 척도이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5이었다.

분석방법

자료들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6.0이 사용되었다. 분노, 분노반추, 사회의존성과 자율성 및 주관안녕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α)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표 2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을 제시하였다. 분노와 주관안녕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모두 주관안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184\sim-.258, p<.01$), 가정하 바와 같이 특성분노, 상태분노, 그리고 분노반추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성분노와 분노반추가 조금 더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r=.550\sim.659, p<.01$). 또한 분노반추는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와 부적상관을 보였다($r=-.208\sim-.223, p<.01$).

Pavot와 Diener(199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관안녕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상호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했다($r=.512, p<.01$). 그리고 사회의존성 및 자율성과 주관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의존성과 주관안녕정서만이 부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r=-.201, p<.01$). 자립성과 성취지향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자율성 특성이 주관안녕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고, 사회의존성(애착 욕구에 대한 신념들을 반영)이 정서적인 주관안녕에 유의한 상관을 보인 이유는 수용자들이 교도소라는 통제가 심한 환경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대인간 상호작용은 일반사회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의존성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주관안녕정서가 낮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2. 주요변인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평균(M)	16.65	11.65	27.91	38.91	30.98	24.77	41.20
표준편차(SD)	4.85	3.27	8.10	12.09	11.63	8.95	14.01
1. 특성분노		.469**	.659**	.322**	-.301*	-.184**	-.258**
2. 상태분노			.550**	.133	.075	-.201**	-.252**
3. 분노반추				.336**	-.343*	-.208**	-.223**
4. 사회의존성					-.750*	.034	-.201**
5. 자율성						.053	-.089
6. 주관안녕인지							.512**
7. 주관안녕정서							

*p<.05, **p<.01

표3.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 대한 특성분노, 상태분노 단계적 회귀분석

DV	IV	R ²	Adj. R ²	B(β)	ΔR ²	ΔF	df
주관안녕 인지	상태분노	.040	.035	-.551(-.200)**	.040	8.581**	1,205
주관안녕 정서	1단계 특성분노	.067	.062	-.747(-.258)**	.067	14.658**	1,205
	2단계 특성분노 상태분노	.089	.080	-.552(-.181)**	.022	5.017*	2,204

*p<.05, **p<.01

사회의존성은 상태분노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고 특성분노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r=.322, p<.01$), 자율성은 상태분노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지만 특성분노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r=-.301, p<.05$). 이는 우울, 불안, 적대감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은 일종의 성격특성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험되어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화는 상태분노 보다는, 상황에 관계없이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인 특성분노와 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의존성은 특성분노와 정적인 상관을, 자율성은 특성분노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은 구별되는 두 가지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고, 자율성 척도의 문항내용을 살펴본 결과 “나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등 “자율”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긍정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분노 및 분노반추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Sukhodolsky 등(2001)은 보다 광범한 분노현상의 연속선에 있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요인이라고 분노반추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분노반추를 분리하여 각각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상태분노, 특성분노가 각각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없어,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주관안녕인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동일한 독립변인에 주관안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주관안녕인지에 있어서는 상태분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F(1, 205)=8.58, p<.01$. 주관안녕정서의 경우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8.9%를 설명하였고, 유의하였다. 주관안녕정서를 설명하는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을 때, 상태분노가 더 중요성을 살펴 보았을 때 상태분노가 더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표4. 주관안녕에 대한 분노반추 회귀분석

DV	IV	R ²	F	df	B	Beta	t
주관안녕인지	분노반추	0.043	9.228**	1, 205	-.229	-.208	-3.038**
주관안녕정서	분노반추	0.050	10.735**	1, 205	-.386	-.223	-3.276**

*p<.05, **p<.01

다음으로, 분노와 독립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는 분노반추가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노반추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주관안녕인지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동일한 독립변인에 대해 주관안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 모두에 분노반추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분노와 분노반추는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에 모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관안녕인지는 상태분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주관안녕정서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상태분노는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상태로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하는 것이며, 특성분노는 시간에 관계없이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이다.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분노유발상황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성이 주관안녕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분노보다 광범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분노반추는 주관안녕정서와 주관안녕인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사회에 비해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환경은 주의분산을 시킬만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어 분노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반복생각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분노감이 또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주관안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의존성 및 자율성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 및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사회의존성 및 자율성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수용자들의 분노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였다(그림1).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랐다. 앞선 회귀분석에서 주관안녕인지를 분노가 예언하지 못했고(표 3), 자율성과 주관안녕(정서와 인지)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회의존성과 상태분노와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표 2).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변인을 제외 하고, 사회의존성이 주관안녕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특성분노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에, 종속변인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두 번째에서 보다 세 번째에서 줄어들어야 한다(부분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이때 만약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성분노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5에 표시하였다.

표 5를 통해 사회의존성과 주관안녕정서와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특성분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사회의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beta=0.28, p<.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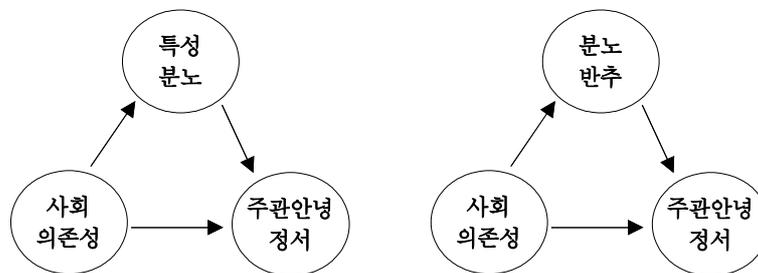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의존성과 주관안녕정서와의 관계에서 특성분노,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모형

표5. 사회이존성과 주관안녕정서와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R^2	F	B (β)
1단계	사회이존성→특성분노	.081	18.044**	.118(.028)**
2단계	사회이존성→주관안녕정서	.037	7.799**	-.230(-.191)**
3단계	사회이존성→주관안녕정서 특성분노→주관안녕정서	.082	9.096**	-.154(-.128) -.641(-.222)**

*p<.05, **p<.01

또한 주관안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사회이존성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91$,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 매개변수인 특성분노를 추가하여 사회이존성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안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특성분노는 주관안녕정서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beta=-.222$, $p<.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사회이존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주관안녕정서와 사회이존성의 관계에 있어 특성분노가 완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광범한 분노반추도 분노와 마찬가지로 사회이존성이 주관안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절차는 특성분노의 경우에서처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랐다. 특성분노와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관안녕정서와 사회이존성의 관계에 있어 분노반추가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표 6).

이는 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타인의 사랑, 승인,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제한됨으로 인해 분노와 분노반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분노와 분노반추는 수용자들의 주관안녕을 해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개인목표 성취와 타인통제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과도한 욕구인 자율성이 좌절될 때 분노와 분노반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관안녕이 낮아 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6. 사회이존성과 주관안녕정서와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R^2	F	B (β)
1단계	사회이존성→분노반추	.108	24.747**	.228(.328)**
2단계	사회이존성→주관안녕정서	.037	7.799**	-.230(-.191)**
3단계	사회이존성→주관안녕정서 분노반추→주관안녕정서	.065	7.140**	-.159(-.133) -.311(-.180)*

*p<.05, **p<.01

논 의

수용자가 구급에 대처하는 정신 능력은 교정시설 프로그램의 성공 지표가 되며,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에서 야기된 폭력과 질병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Wright & Goodstein, 1989; Wooldredge, 1999) 수용자의 정신능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에 교정행정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한 수용자가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를 가지고 출소한다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엄청난 것임을 최근에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단기적인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엄정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심리개입에 교정행정이 총력을 기울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철호, 이민규(2006)는 간이정신건강검사(SCL-90-R)를 사용한 수용자의 정신건강연구에서 Derogatis(1994)가 추천한 T점수 63보다 점수가 높은(T점수 65이상) 수용자의 인원과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신체화(13.9%), 공포불안(13.2%), 정신증(13.5%), 불안증(9.4%), 대인민감(8.7%), 편집증(8.5%), 우울증(7.1%), 적대감(7.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도소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관안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정서인 분노가 그들의 주관안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의존성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에 분노와 분노반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용자들의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는 주관안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태분노가 특성분노보다 주관안녕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철호와 이민규(2006)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모든 하위증상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특성분노보다 상태분노가 상관이 높았고 상태분노와 적대감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줌을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최윤미 등(2008)이 수용자 분노가 실존적 안녕과 부정적 상관을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교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태분노를 잘 조절하는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

는 것이므로 이들의 분노를 없애는 심리개입이 요구되고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교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유철민, 2009).

둘째, 분노반추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노반추가 주관안녕인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분노반추를 많이 하는 수용자일수록 주관안녕이 낮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일반사회에 비해 교도소 내 생활환경은 주의분산을 시킬만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어 분노기분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반복생각을 지속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복생각이 분노를 일으키고 다시 반복생각을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주관안녕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성교육(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예, KACP: Korea Anger control Correction Program, 주2회 10회기 5주간)등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철호, 이민규, 박혜량 등, 2009).

셋째, 사회의존성과 자율성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와 분노반추가 이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성보다는 사회의존성이었고 사회의존성이 주관안녕정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성분노와 분노반추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의존성이 교도소 생활에서 특성분노와 분노반추를 높이고 이런 특성분노와 분노반추는 수용자의 정서적 주관안녕을 낮게 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주관안녕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주관안녕사회적존성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관련 법이나 규정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오히려 수용자의 사회의존성 욕구를 낮게 조절하여 특성분노와 분노반추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의존성은 중간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과 관련된다. 긍정사고 경향성을 높여주고 부정 사고 경향성을 낮추어 주는 심리적 개입(감사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현재 J교도소에서 인성교육내용으로 감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철호, 이민규, 서은수 등, 2009).

집단생활을 주로 하는 수용자들의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율성보다는 사회의존성(sociotropy)이었다. 집단생활에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 참고 남들에게 양보하는 성향이 중요하고 이러한 경향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보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라 여겨지고 사회의존성이 우울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Zettle, Haflich와 Reynolds(1992) 그리고 Zettle 와 Herring(1995)의 연구에서 사회의존적인 사람은 집단치료에서 더 나은 성공을 보이고 자율적인 사람은 개인치료에 더 나은 성공을 보임을 밝혔는데, 집단생활을 주로 하는 수용자들의 주관안녕을 잘 예측하는 성격차원은 사회의존성임을 밝힌 결과와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수행생활자체가 자율성이 없는 곳이라는 지각에서 수용자들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생활하는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다. 집단생활을 주로 하는 수용자들에게 자율성보다는 사회의존성을 낮추어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덕용과 박준호(200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안녕인지, 주관안녕정서의 평균값은 각각 4.48, 4.39였다. 그러나 수용자집단의 평균은 주관안녕인지 3.59(24.77/7문항), 주관안녕정서 4.12(41.2/10문항)로 조금 낮았다. 수용자 집단의 주관안녕을 높여 주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교도소 남자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여자수용자를 추가하여 비교하는 연구와 여자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집단과 일반학생집단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분노에 대한 사건일치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수용자들의 주관안녕에 분노와 분노반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율성보다는 사회의존성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부정적 정서인 분노와 분노반추 수준을 낮추고 주관안녕을 높여

주는 심리적개입(KACP, 감사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에 교정시설에서 많은 심리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긍정심리학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광해 (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5(2), 3-26.
- 김교현, 전점구(1997). 건강: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5(2), 19-39.
- 김은심, 이민규, 최지명 (2006). 암환자의 성격특성과 분노표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논문집. 238-239.
- 민정희, 강혜자 (2009).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 교정연구, 45, 253-277.
- 박영주, 백순임, 신현정, 윤지원, 천숙희, 문소현 (2006). 중년남성의 분노, 심혈관 건강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지지지의매개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6(5), 863-871.
- 우사람 (2000). 분노와 공격성의 뿌리: Bhagawad Gita로부터 얻는 인도의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171-180.
- 유동식, 차윤정 (2004). 조선어 학습서에 나타난 국어사적 특징과 일본어 간섭현상. 우리말 연구 제14집, 47-83.
- 유철민 (2009). 수형자에게 미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교정연구, 45, 331-359.
- 이민규 (2000)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47-257
-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43-62.
- 이영희 (2009). 상습규율위반자 교정시설 적응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5,

- 63-93.
- 이철호, 우리님, 이민규 (2008). 한국판SAS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연차학술대회: 건강.
- 이철호, 이민규 (2006). 교도소 수용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77-90.
- 이철호, 이민규 (2007)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교도소 수용자의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35-46.
- 이철호, 이민규, 박혜랑, 서은수, 김정애, 정혜원 (2009) KACP(분노조절프로그램)이 교도소 관심대상 수용자의 분노,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학회 포스터발표.
- 이철호, 이민규, 서은수, 김정애, 강교민, 정혜원(2009). 감사프로그램이 교도소 수용자의 특성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학회 포스터 발표.
- 이철호, 이민규, 송민정, 심태경 (2008). 한국판분노반추 척도개발. 한국건강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 전경구, 김영조, 안덕웅 (1999). 부부간의 분노표현 양식 불일치와 관상동맥질환: 남자환자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27-40.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척도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조은경 (2005). 교정심리학의 필요성. 교정연구, 제27호, 13-25.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8집. 서울: 집문당.
- 차보경, 손정남 (2006).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방식 및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15(2), 187-196.
- 최윤미, 이지연, 양난미 (2008).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37-551.
- 한덕웅 (2001). 한국의 전통의학 사상에서 정서와 신체 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22.
- 한덕웅 (2003). 4단 7정의 경험이 주관안녕, 건강지각과 신체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한덕웅 (2006).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63-387.
- 한덕웅, 박준호 (2003).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분노경험이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47-168.
- 한덕웅, 박준호, 김교현 (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99-130.
- 한덕웅, 표승연 (2002). 정서경험에 따른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03-427.
- 홍성열 (2009). 교정교육에서 기초필수 과목. 교정연구, 45, 307-330.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nestis, M. D., Anestis, J. C., Selby, E. A., & Joiner, T. E.(2009). Anger rumination across form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6, 192-196.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 Implication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Barber, L., Maltby, J., & Macaskill, A. (2005). Angry memories and thoughts of rev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anger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2), 253-26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Stillwell, A., & Wotman, S. R. (1990). Victim and perpetrato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 about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94-1005.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ieling, P. J., Beck, A. T., & Brown, G. K. (2000).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Structure and Implic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63-780.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oyle, D. J., & Vivian, D.(1996). Generalized versus spouse-specific anger/hostility and men's violence against intimate. *Violence and Victims*, 11, 293-317.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r extinguish the flame? catharsis, rumination,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6), 724-731.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l Sage.
- Cane, D. B., Olinger, L. J., Gotlib, I. H., & Kuiper, N.A. (1986). Factor structure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in a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307-309
- Cornell, D., G., Peterson, C., S., & Richards, H. (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1). 108-115.
- Dasch, K. B., Cohen, L. H., Sahl, J. C., & Gunthert, K. C. (2008). Moderating Effects of Sociotropy and Autonomy on Affective and Self-esteem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 177-195
- Derogatis, L. R. (1994).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National Computer System, Inc., Minneapolis.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75.
- Diener, E. & Suh, S. M.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 Ther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bash, R. E., & Dobash, R. P.(1984). The nature and antecedent of violent even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4, 269-288.
- Ellis, A. E.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 Citadel Press.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1). *Positive emotion*. In T. J. Mayne & G. A. Bonnano(Eds.), *Emotion: Current issues and future development*. New York : Guilford.
- Frenk, V. H., Joop, V. D., Pligt, L. C., & Wilco, W. V. D. (2007). Inmate emotion coping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5), 697-708.
- Fresco, D. M., Sampson, W. S., Craighead, L. W., & Koons, A. N. (2001). The relationship of sociotropy and autonomy to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46, 17-31.
- Frijda, N. (1986). *The emo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eveld, F. V., Pligt, J. V. D. Claassen, L., & Van

- Dijk, W. W. (2007). Inmate emotion coping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 697-708.
- Hilton, C. & Moniz-Cook, E.(2004). Examining the personality dimensions of sociotropy and autonomy in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eir relevance to person centered care.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2*, 457-465.
- Hogen, B. E., & Linden, W.(2004). Anger response style and blood pressure: at least don't ruminate about it!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7*, 38-49.
- International Centre of Prison Studies.(2009) Retrieved from http://www.kcl.ac.uk/depsta/law/research/icps/worldbrief/wpb_stats.php?area=all&category=wb_poptotal.
- Kroner, D., G., & Reddon, J., R. (1995). Anger and psychopathology in Prison Inm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6), 783-788.
- Langlois, R., Freeston, M. H., & Ladouceur, R. (2000a).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obsessive intrusive thoughts and worry in a non-clinical population: study 2.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157-173.
- Langlois, R., Freeston, M. H., & Ladouceur, R. (2000b).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obsessive intrusive thoughts and worry in a non-clinical population: study 2.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175-189.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ink, B. & Steuve, A. (1995). Evidence bearing on mental illness as a possible cause of violent behavior. *Epidemiology Reviews, 17*, 172-181.
- Maxwell, J. P.(2004). Anger rumination :An antecedent of athlete aggress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279-289.
- Martin, R., C., & Dahlen, E., R. (2005).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9*, 1249-1260.
- Martin, L. L. & Tesser, A. (1989). *Toward a motivational and structural theory of ruminative thought*.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306-326). New York , NY: Guilford.
- Miros, N. J. (2000). Depression, anger and coping skill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examination of the diathesis-stress-hopelessness theor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and Engineering, 61*, 3286.
- Morse, J. Q., & Robins, C. J. (2005). Personality-life event congruence effects in late-life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4*, 25-31.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64-172.
- Raghavan, C., Le, H. N., & Berenbaum, H. (2002). Predicting dysphoria and hostility using the diathesis-stress model of sociotropy and autonomy in a contextualized stress sett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231-244.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H., Diaz, R. & Kut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Assessment, 16*, 277-300
- Rusting, C., & Nolen-Hoeksema, S. (1998). Regulating responses to anger: Effects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angry mood.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74, 790-803.
- Smith, E., Nolen-Hoeksema, S., Fredrickson, B. & Loftus, G. (2003). *Atkinson & Hilgard's Introduction to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 Spielberger, C. D. (1988). *Stait-Trait Anger Epression Inventory*. Oriando,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 91-102.
- Stoerber, J. (2003). Self-pity: exploring the links to personality, control beliefs, and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71, 183-220.
- Sukhodolsky, D. G., Gloub, A.,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689-700.
- Suinn, R.(2001). The terrible two-anger and anxiety: Hazardous to your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6, 27-36.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EM.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pp. 7-12). Beverly Hills, CA: Sage.
- Toch, H. (1977). *Living in prison: The ecology of survival*. New York : Free Press.
- Vechio, T. D., & O'Leary, K. D.(2004). Effective of anger treatment for specifmeanger problem :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15-34.
- Watkins, E. (2004). Appraisals and sns,tegies associated with rumination and worry. *Pgies associatedindividual Differences*, 37, 679-694.
- Weissman, A. N., & Beck, A.T.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Tronto, Canada.
- Wenzlaff, R. M., & Wegner, D. M.(2000). Thought sup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59-91.
- Westmaas, J. L., Ferrence, R. & Wild, T. C.(2006). Autonomy(vs. sociotropy) and depressive symptoms in quitting smoking: Evidence for trait-congruence and the role of gender. *Addictive Behaviors*, 31, 1744-1760.
- Wooldredge, J. D. (1999). Inmate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2), 235-250
- Wright, K. (1993). Prison environment and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20, 93-113.
- Wright, K., & Goodstein, L. (1989). Correctional environments. In L. Goodstein & D. McKzie(Eds), *The American prisork*(pp. 253-270). New York: Plenum.
- Zamble, E. (1992). Behavior and adaptation in long-term prison inmates: description of longitudinal res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9, 409-425.
- Zamble, E., & Porporino, F. (1990). Coping, imprisonment, and rehabilitation: Some data and their implications. *Criminal Justice & Behavior*. 17(1), 53-70.
- Zettle, R. D., Haflich, J. L., & Reynolds, R. A. (1992). Responsivity of cognitive therapy as a function of treatment format and client personality dimens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787-797.
- Zettle, R. D., & Herring, E. L. (1995). Treatment utility of the sociotropy/ autonomy distinction: Implications for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280-289.

The Influence of Sociotropy and Autonomy on Subjective Well-being of Offenders : Mediation of Anger and Anger Rumination

Chul Ho Lee Jung Ae Kim Minkyu Rhee Chang Young Youn
Jinju Corrections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Career
Ministry of Justi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aching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otropy-autonom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prison inmates and how they influenced by anger and anger rumination.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Spielberger, 1988), Sociotropy-Autonomy Scale(SAS, Bieling, Beck, & Brown,2000), subjective well-being(Campbell, 1976 and Diener, 1984), Anger rumination scale(ARS,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was used to measure level of state anger, traits anger, anger rumination, sociotropy and autonomy, subjective well-being of 245(207 responded) inmate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computed using the data. Negative relationships were demonstrated between anger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anger rumination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 subjective well-being. Second, Negative relationships were demonstrated between anger rumin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ird,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trait anger and anger rumination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otropy and subjective well-being. Finally,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anger, anger rumination, SAS, sociotropy, autonomy, subjective well-being, prison inmates, offender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0월 1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2월 4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9일